

정준영 '성 몰카'만 두번째 | 향후 처벌은 어떻게?



12일 오후 6시4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정준영(가운데)이 모자를 푼 채 몰려든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했냐"는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왜 떴게?

15년 우정이며 굿바이



조쉬

●영국남자, 정준영 :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 유튜버 '영국남자' 조쉬가 정준영과 함께 찍었던 영상을 삭제해 눈길을 끈다.

이 영상은 '외국인이 정준영에게 한국 술 문화 배우기' 콘셉트로 지난해 12월에 촬영됐다. 두 사람은 중국 유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15년 절친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조쉬는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 유포 보도가 터지자 하루 만에 영상을 내렸다. 역시 '쿨'한 영국남자. 맺고 끊는 게 확실하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박솔미

●박솔미, 한 재석 첫인상 : "첫인상요? 별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출연한 박솔미가 남편 한재석 이야기로 웃음을 자아냈다. 첫인상에 대해 '느끼한 외모'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작품을 하면서 만났는데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다. '솔미야'하고는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이 귀여웠다"고 돌아봤다. 솔로 남성 여러분, 오늘 당장 그녀에게 전화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잔내 풀플 고백



샤이니 키

●샤이니 키, 군대 좋은 점 :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샤이니 키의 '잔내고백'. 이날 출연은 입대를 앞둔 마지막 방송으로 알려졌다. 키는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기대된다"며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10년 이상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잔내 풀플이다. 키씨, 군대 가면 밥도 제때에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군대가 좋아도 딸푹은 노노! 얼른 팬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법조계 "정준영 구속에 무게...최고 5년형"

3년전에도 전 여친 신체 촬영 피소 죄의식 없이 불법촬영 영상 공유 '여성은 성 노리게' 인식 빠진 듯 여성들 2차피해 우려 대응도 못해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모습 등을 담은 이른바 '몰카' 영상을 촬영 및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이후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 등 일부 연예인 및 지인들과 함께 있는 스마트폰 메시지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모습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또 다른 단

체대화방에도 불법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tvN '현지에서 먹힐까?' 촬영차 미국 LA에 머물다 이날 오후 귀국한 정준영은 물론 승리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 촬영한 영상물과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구속 가능

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정준영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와 단체대화방에 모여든 연예인 등이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외면한 채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11일 SBS는 정준영이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과시하며 관련 영상을 요구하는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이란 점을 알면서도 이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불법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공유·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성관계 및 여성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만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 한 번 이에 대

한 사회적 경각심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한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정준영 등 관련 연예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9월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그는 "장난삼아 촬영한 뒤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사건의 경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포브스 발표 '2019 세계 스포츠 시장 브랜드 파워' 랭킹

수익규모 37조5000억 원...나이키, 영향력 1위

20조7000억 원 가치...펍스 2위 제임스, 수입 1000억 원 '선수 1위'

전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쥔 브랜드와 선수는 각각 나이키와 르브론 제임스(35·미국)였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2일(한국시간) 2019년 스포츠 머니 인덱스(SMI) 순위를 발표했다. SMI는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을 이끄는 선수와 팀, 브랜드, 에이전시 등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잣대다. 자체 가치를 비롯해 연봉과 매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쪽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였다. 자체 브랜드 가치 320억 달러(31조 원), 수익 규모 333억 달러(37조5000억 원)로 경쟁 브랜드와 전 세계 스타플레이어들을 모두 제쳤다. 전 종목에 걸쳐 다양한 광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펍스가 2위(브랜드 가치 20조 7000억 원)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르브론 제임스가 3위에 오르며 선수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18~2019시즌을 앞두고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제임스는 연봉과 후원액 등을 합쳐 총 1001억 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4위(4조6000억 원),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위(4조 원)를 차지했다. 스포츠는 물론 연예계 전반에 걸쳐 매니지먼트 사



르브론 제임스

개인 또는 단체	구분	종목
1 나이키	브랜드	-
2 펍스	브랜드	-
3 르브론 제임스	선수	농구
4 FC바르셀로나	구단	축구
5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	농구
6 리오넬 메시	선수	축구
7 LA 레이커스	구단	농구
8 CAA	에이전시	-
9 버드와이저	브랜드	-
10 뉴욕 양키스	구단	야구

업을 펼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는 7위에 올라 전체 에이전시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했다.



형 박성배 감독



동생 박성훈 코치 선임

신한은행, 형 박성배 선임 감독·동생 박성훈 코치 선임

프로농구 첫 형제 감독·코치 탄생

박 감독, 우리銀 코치로 지도력 인정 삼성 출신 박 코치, 고교서 코치 경험

남녀 프로농구 최초의 형제 감독·코치가 탄생했다.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은 신임 감독에 박성배 전 우리은행 코치(45)를 선임했다고 11일 공식발표했다.

박 신임 감독은 아산 우리은행 코치로서 위성우 감독, 전주원 코치와 함께 6시즌 연속 통합우승(정규리그·챔피언결전)을 일구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박 코치선임도 마무리 했다. 하상윤(44), 박성훈(42), 양지희(36) 신임 코치가 박 감독을 보좌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이는 박성훈 코치다. 올해 초까지 인천고등학교 코치였던 박 코치는 박 감독의 친동생이다. 남녀 프로농구를 통틀어 형제가 감독과 코치로 한 배를 타

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배·박성훈 형제는 경북고와 경희대를 거쳐 삼성에서 나란히 선수생활을 했다.

박 감독 입장에서 코치로 동생을 둔다는 건 큰 부담이었지만, 오로지 '지도자'로의 역량만 생각한 선택이었다. 박 감독은 "주변에서 동생을 코치로 두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동생 박성훈'이 아니라 '지도자 박성훈'을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중·고교에서 팀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적어도 농구만큼은 잘 가르친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도자다. 여자 선수들에게는 기본기를 다지는 일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고교선수를 지도했던 동생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감독은 "구단에서 좋은 기회를 준만큼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지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